‘코로나19’ 시대에 사는 우리 방랑하는 삶은 어떨까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내달 23일까지 ‘날 것, 그대로의 것’展

유지원·임의진 작가 초청 2인전
야생적 사유 창조적 상상력 가득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이 유지원·임의진 작가를 초청, 기획전 ‘날 것, 그대로의 것’을 선보인다. 사진은 아레아갤러리 A동에 전시된 임의진 작가의 작품들. 〈해동문화예술촌 제공〉

유지원 作 ‘trace-(un)building’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요즘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나 타인에 대한 경계의 시선은 거두고, 걱정과 근심을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는 삶을 한 번쯤 상상할 것이다.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날 것, 야생적인 것에 대한 상상력이 가득 담긴 전시를 통해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보면 어떨까.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은 다음달 23일까지 예술촌 내 아레아갤러리에서 유지원·임의진 작가를 초청, 기획전 ‘날 것, 그대로의 것’을 선보인다.

이 전시는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의 예술적 속성들에 집중한다.

먼저 아레아갤러리 B·C동에 작품을 전시하는 유지원 작가는 쓰다 시간이 지나 버려진 것, 오래돼 기피된 공간 등 그 자체에서 보이는 날 것의 미적가치에 집중한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된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서로 다른 시간의 층위를 끄집어낸다.

그가 발견한 대상은 죽음과 시간, 시간이 지나 결국 의미가 퇴색돼 존재 자체가 보잘 것 없는 사라져가는 대상물이다.

특히 그가 이번 전시에서 집의 형상으로 표현한 작품 ‘트레이스-(언)빌딩’(Trace-(Un)Building)은 현실과 비현실을 일차원적으로 공존시킨다.

한국민주화운동에 뛰어들어 청년기를 혼돈 속에서 보낸 임의진 작가는 해외 각지를 순례하면서 ‘어깨춤’, ‘떠돌이별’, ‘이매진’ 등의 별명을 가지게 됐다.

오랜 문명사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신화로 표출됐다면, 그의 삶은 여행지에서의 단순한 방랑객이나 이주민이 아닌 ‘유목민’의 삶처럼 야생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야생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불모의 땅이 된 곳에 달라붙어 그 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창안한다.

아레아갤러리 A동에서 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양초롱 해동문화예술촌 총감독은 “날 것 자체에서의 시·공간의 층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유형, 야생의 사유를 기반으로 한 삶을 상상할 수 있다”며 “지역민과 관람객들이 이 전시를 통해 많은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동문화예술촌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aedong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겨울 기자

한국화로 그려낸 순천만의 정취

남포미술관, 한국화가 장안순 초대전

장안순作 ‘여백’ 〈남포미술관 제공〉

순천만의 갈대와 빛, 소리를 한국화로 풀어낸 작품들을 만나볼까.

남포미술관(관장 곽형수)은 다음달 9일까지 한국화가 장안순 작가를 초청, 초대전 ‘소리를 보다’를 연다.

전시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견 작가들을 초대해 그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중견작가 초대전’의 일환으로 마련된다.

오랜 세월 매진해온 작품 활동을 통해 구축한 자신만의 독창적 기법을 바탕으로 원숙한 작품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장안순 작가는 순천만의 아름다운 자연과 정서를 탁월한 묘사력과 힘있는 붓놀림으로 화폭에 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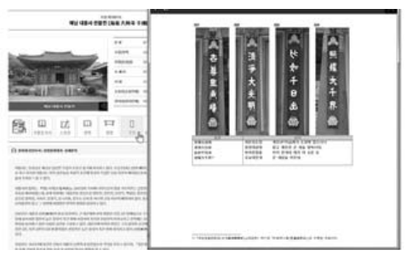
전시에서 작가는 순천만의 대표 이미지인 ‘갈대’와 갈대의 무리를 어루만지는 ‘빛과 바람’, ‘흑두루미’의 군무를 서정적으로 담아낸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자연에 대한 풍부한 묘사와 해석이 돋보이는 그의 작품은 공간적, 색채적 조화의 완숙미와 세련미를 담고 있으며, 작품 전체에 흐르는 시적 정서는 느긋하고 편안한 감흥으로 다가온다.

곽형수 남포미술관장은 “이번 전시에는 ‘재주(JAZZ)’, ‘순천만 밤 풍경’, ‘인연’ 등 순천만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대작들이 대거 출품됐다”며 “원숙한 기량을 뽐내는 자유분방한 필법으로 자연의 미감을 최대한 살린 그의 작품은 한 편의 서정시를 읽는 듯 깊이 있는 울림으로 다가갈 것이며, 수묵의 사유세계를 음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안순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광주시전·전남도전 심사위원, 순천대, 원광대 강사 등을 역임하고, 21회의 개인전과 500여회의 국내외 단체전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도화헌미술관 학예사, 순천대 평생교육원 지도교수, ㈔한국미술협회 이사, 한국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겨울 기자

현판·비문 등 옛 건축 부속기록물 뜻풀이 제공

문화재청, 연말까지 건조물문화재 기록물 목록화


〈사진〉

이해하기 어려웠던 옛 건축물의 현판이나 비석의 비문 내용을 알기 쉬운 뜻풀이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9일 “국보·보물로 지정된 건조물 문화재(주로 건축물) 622건에 부속된 기록물 1천485개와 관련 기록물 4만579개를 전수조사해 지난해 12월 수집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까지 목록화해 통합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부속 기록물은 문화재에 부착돼 있거나 새겨진 현판, 주련(柱聯·그림이나 글귀를 쓰거나 새겨 기둥에 걸어 두는 물건), 비문, 각자(刻字·새긴 글자) 등이며, 관련 기록물은 고문헌, 사진, 도면, 수리기록, 논문 등을 말한다.

특히 부속 기록물에는 건립 취지, 중수와 변화, 관련 인물 행적, 종교적 의미 등이 담겨 있어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현판 773개, 주련 419개, 비문 159개, 각자 85개, 묵서 49개 등 부속 기록물 1천485개의 문양과 바탕색, 글자색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번역작업을 완료했다.

이는 앞으로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와 국민들이 건조물문화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정겨울 기자

광주 남구 홀리어스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설치된 임용현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SPREAD’. 〈작가 제공〉

오피스텔 건물에 공공미술로 내걸린 ‘미디어아트’

임용현 작가, 백운광장 홀리어스에 설치

광주를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임용현 작가가 광주에서 남구 오피스텔에 공공미술로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임 작가는 시공사 ㈜퍼스트골드가 광주 남구에 신축한 홀리어스 주상복합 오피스텔(대남대로 219)의 공공미술작품으로 ‘Journey’(3분8초, 싱글채널영상. 2018), ‘SPREAD’(2분58초, 싱글채널영상. 2018), ‘Untitled’(5분, 싱글채널영상. 2016)를 설치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한다.

그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공공미술작품은 회화, 공예, 조각이 주를 이뤘으나 홀리어스 주상복합 오피스텔에는 광주 최초로 영상 작품이 설치됐다.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은 세 개의 영상 작품이며 건물 외부에 위치한 4개의 기둥을 LED패널로 감싸 입체적인 표현을 했다. 또한 설치된 LED 패널의 즉각적인 관리와 보수를 위해 지역 업체인 진미디어(JIN MEDIA)에서 설치 및 관리를 맡았다.

임용현 작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많은 신축 건물들이 회화, 공예, 조각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 등 보다 폭넓은 장르의 예술이 공공미술로 설치돼, 보다 아름다운 광주가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겨울 기자